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1. 26.(목) 12:45 (2026. 11. 27.(금) 조간)

일하는 사람 기본법, 현장의 목소리로 말하다

- 노사발전재단, 11월 26일「2026 노동권익 콘퍼런스 WORK NEXT」개최
-「일하는 사람 노동권 보호 민관협력 네트워크」공모 이름 최종 공개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1월 26일(목),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 파크홀에서 '2026 노동권익 콘퍼런스 WORK NEXT'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원장 조현경)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우리의 일은 어떻게 달라질까'를 주제로, 일하는 방식과 형태가 다양해지는 노동환경 속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와 현장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일하는 사람 기본법」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논의가 확대됨에 따라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리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살펴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열렸다.

세션1 '우리의 권리,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서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일하는 시민의 시대, 권리의 틀을 다시 짜다'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정흥준 교수는 전통적 임금근로자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이들을 보호할 법적 체계는 부재한 현실을 짚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실제 종속적 관계에서 일하는데도 계약 형식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오분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이어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노동의 재규정과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수립,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현장에 실질적인 권리 보장 정책 실현을 위한 지역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션2 '우리의 일, 어떤 변화를 상상해야 하는가'에서는 김창환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본부장이 지난 3년간 취약노동자 원탁회의를 통해 축적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제안들을 발표하며, 당사자 간 공론의 장을 열었다.

이어진 당사자 열린 대화에서는 배달 라이더, 방송작가, 번역가, 영상창작 프리랜서, 청년 활동가가 참여하여 각자가 일터에서 겪은 부당한 계약관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보호 책임과 의무, 일감 확보의 불확실성, 업무 괴롭힘과 인격 침해 등 현장에서 경험한 어려움들을 공유했다. 무엇보다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정작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댈 수 있는 법·제도적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콘퍼런스 마지막에는 지난 10월 19일 진행된 '일하는 사람 노동권 보호 민관협력 네트워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최종 이름과 앞으로의 역할을 발표했다. 국민 2,170명으로부터 총 3,385건의 이름이 제안되었고, 내외부 심사 통해 '노동권리e음'이 최종 선정됐다.

※ '노동권리e음' 의미: 노동자의 권리와 필요한 지원을 잇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의미

김영훈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일하든 모든 일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노동권을 차별 없이 보장받도록 하겠다는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길 바라며, 기본법의 정신을 토대로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구축,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 등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보편적 권리로서 누구에게나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 실행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더불어 “노사발전재단은 앞으로도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다양한 현장 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일하는 사람 누구도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과 밀착한 사업들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 노동권익 콘퍼런스 WORK NEXT」 개최 계획

담당 부서	노사발전재단 노동권익증진팀	책임자	팀 장	마계희 (02-6021-1065)
		담당자	컨설턴트	최은지 (02-6021-1123)

붙임 **「2026 노동권익 콘퍼런스 WORK NEXT」 개최 계획**

□ 추진 목적

○ 지난 3년간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여 향후 사업 발전 방향 모색

□ 개 요

○ **(주 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우리의 일은 어떻게 달라질까**

○ **(일시·장소)** '26. 11. 26.(목) 12:45~16:00, 피스앤파크 컨벤션 1층 파크홀*
* 주소: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 **(참 석)**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지역 노동센터 및 노동단체 관계자 등

○ **(주 최)** 고용노동부

○ **(주 관)** 노사발전재단,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협 력)** 사무금융우분투재단, 한국노동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노동공제연합 풀빵

□ 행사 일정

시 간		내 용
12:45~12:50	05′	**• 개회 및 내빈 소개**
12:50~12:55	05′	**• 개회사 및 환영사** - 개회사: 고용노동부장관 - 환영사: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12:55~13:00	05′	**• 축 사**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송경용 한국노동재단 공동이사장, 이수호 노동공제연합 풀빵 이사장 -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
13:00~14:20	80′	**• 세션 I: 우리의 권리, 어떻게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 - **기조 발제: 일하는 시민의 시대, 권리의 틀을 다시 짜다**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라운드테이블** 좌장: 이창곤(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 패널: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이주희(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4:20~14:35	15′	**• 휴식**
14:35~15:50	75′	**• 세션II: 우리의 일, 어떤 변화를 상상해야 하는가** - **현장의 목소리: 3년의 기록, 1,000명의 목소리가 남긴 질문들** 김창환(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본부장) - **당사자 열린 대화** 좌장: 변금선(서울연구원 인구변화대응연구센터장) 패널: 전성배(라이더유니온 서울지회장), 유지향(방송작가유니온 사무처장), 최재직(번역협동조합 사무국장), 이슬이(영상창작 프리랜서), 김지현(청년유니온 사무처장)
15:50~15:55	05′	**• 새로운 연대의 시작, 「일하는 사람 노동권 보호 민관 협력 네트워크」 신규 명칭 공개**
15:55~16:00	05′	**• 폐회**